

전국의 보물같은 여행상품 여수서 만난다

다음달 3·4일 '2017 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익산 서동요 테마 '천년의 고백여행, 이리와락(樂)!'
나주 '여행자의 식탁 천년나주, 색으로 다(多) 채우다'
여수 '가을도 반하는 여자도 손맛여행' 등 다양



지난해 부산에서 '달밤의 여행마켓'이라는 테마로 열린 '2016 관광두레 전국대회'. 지역 관광사업자들이 특색있는 여행상품 등을 선보였다. <여수시 제공>

전통이 어우러진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두레 여행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7 관광두레 전국대회'가 오는 11월 3일부터 이틀간 여수 세계박람회장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주관으로 여수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찾아 나선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첫날인 3일에는 박람회장 내 엑스포 디지털갤러리에서 4개 권역별 보물섬 탐험을 주제로 여행마켓이 열릴 예정이다.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독특한 여행상품을 직접 둘러보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여행마켓에 참여한 권역별 전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도 관람객들에게 음식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별 공연도 선보인다.

이튿날에는 관광두레 사업 참여 주민과 관광두레 PD의 창업·인생 스토리 발표, 전유성(개그맨)씨가 특별강연도 마련된다.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고유한 특색이 담긴 관광두레 여행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면서 "축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광두레는 현대 관광산업에 전통적 공동체문화인 두레를 결합한 것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광사업 공동체를 말한다.

문광부는 국내여행 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를 가을여행주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식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진짜여행상품 '여행자의 식탁'을 관광두레 여행상품으로 안내하고 있다.

익산에서는 '천년의 고백여행, 이리와락(樂)'이라는 명칭으로 서동요 사랑여행을 테마로한 관광두레 여행상품을 내놓았고 나주에서는 곱담 한 그릇과 천연염색 기념품 체험, 나주 정(鄭)씨 고택에서의 수채매주 다이닝 등을 즐길 수 있는 '추추추, 여행자의 식탁 천년나주, 색으로 다(多) 채우다'는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여수에서는 '가을도 반하는 여자도 손맛여행'이라는 상품을 내놓았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급식을 펼치고 있는 롯데케미칼 사루데 봉사단 직원들. <롯데케미칼 제공>

롯데케미칼 사랑나눔... 노인복지관 찾아 효도급식

여수산단 내 롯데케미칼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나눔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30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따르면 사내 봉사단인 롯데 사루데 봉사단은 지난 25일 여수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찾아 효도급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부인회와 봉사단원 30여명이 참여, 복지관을 찾은 지역 어르신 3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롯데케미칼 사루데 봉사단 관계자는 "지역 기업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케미칼 사루데 봉사단은 매일 '빨간밥차 무료급식'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생활필수품 전달 및 집수리 봉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화장동 고층 아파트 건립 불가' 여수시 처분 적법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토지 소유자와 이를 반대하는 여수시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화장동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 A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제안 반려 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여수시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9월 화장동 일야 2만 8400㎡를 4층 이하 건축물만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제안을 여수시에 신청했다.

여수시는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점,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 종 상향에 따라 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도 행정심판위는 올해 4월 여수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화장동 아파트 사업부지는 5층 이상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며 "조환원으로 가입하려는 시민은 광고내용과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정유재란 국제학술회의

다음달 4일 디오션리조트

정유재란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국제학술회의가 여수에서 열린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420주년을 맞은 정유재란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국제학술회의가 다음달 4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정유재란 7주갑(420주년)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명기 명지대 교수는 기초 강연자로 나서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분석해 설명한다. 또 이욱 순천대 교수와 민덕기 정주대 교수는 각각 정유재란 당시 호남 민중의 동향, 정유재란 당시 납치된 조선인을 주제로 발표한다.

연세대 대학원생인 당첸난(丁辰楠)은 정유재란 시기에 조선 연행사가 중국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해 논하고, 김민주 리드앤리더 대표는 정유재란 관련 유적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수시도시공사, 도시관리공단으로 새 출발

2본부 4팀 1사업소로 운영

여수시도시공사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사진>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도시공사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으로 조직 체계를 변경하고 지난 26일 '시민을 위한 감동경영',

'변화를 통한 혁신경영', '가치실현을 위한 화합경영' 등을 내걸고 공식 출범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본부 4팀 1사업소로 운영되며 기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 외에도 공영주차장, 망마국민체육센터, 자연휴양림 관리 사업도 맡는다. 정학근 이사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확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여수시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행안부의 시정관고에 따라 지난 2월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공단으로 전환토록 승인받았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돌산대교 노후 케이블 교체공사로 한달간 차량 통제

돌산대교가 다음달부터 한달 가량 통제된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달 6일 새벽 0시부터 12월 17일 자정까지 여수 돌산대교(길이 450m·폭 11.7m) 양방향 통행을 차단한다.

노후 케이블 교체공사를 위한 것으로, 다만 관광객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는 차량 통행을 허용한다는 방

침이다. 익산지방청은 이 기간에는 일시 공사를 중지한다.

돌산대교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 거북선대교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인근 도로에 도로전광표지판과 현수막, 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돌산대교 통행 차단 시설과 우회 노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최 선 규 H. 010-3605-5000